순창 발효식품 일자리 연계

전문인력 양성 · 일자리 창출센터 운영 · 산업체 취업 · 창업교육 등

순창군이 발효식품 전문 인력을 양성해 취·창업과 연계하는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군은 고용노동부와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지역혁신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순창군 발효아카데미 운영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발효아카데미 사업은 발효식품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장류업체와 연계해 취업과 창업을 돕는 사업으로 예비인력 on-off 일자리 창출센터 운영, 발효관련 산업체 취업 및 창업교육, 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킹 활성화 사업으로 나뉜다.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며 9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12월까지 교육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 취·창업과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사업은 지역 발효식품의 구인·구직 상황을 총괄적으로 연계해 운영하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한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

예비인력 on-off 일자리 창출센터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지역 내 장류업체 구인정보를 공유하고 사전 이력서를 접수를 진행한다.

식품관련 대형 박람회에 참석해 홍보도 진행한다. 구인·구직 단계를 최소화하고 발효식품관련 취업과 창업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발효식품 기업체 취업 및 창업관련 교육도 진행한다.

전통장류제조사반, 전통주 및 전통식초제조사반 등 민간자격증 취득반과 직업교육반 등 3개 반이 운영되며 각반 20명씩 각 8회 이상 운영된다.

군은 순창군 외 임실 장수 등 경제협력권간 연계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들이 발효 기업에 취업하고 창업도 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졸업생과 구인구직자들을 대상으로 SNS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구직 정보 공유와 만남의 장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발효식품 관련 기업의 구인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며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해 실제 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되는 발효식품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에는 2014년 기준 86개 발효관련 기업체가 운영 중이며 고용인원은 832명에 달한다. 또 고용인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가 제7차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AFHC) 국제 컨퍼런스(8. 31~9. 1, 강원도 원주시)에서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로 인증 받았다고 밝혔다.

남원시,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로 인증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AFHC) 국제 컨퍼런스서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제7차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AFHC) 국제 컨퍼런스(8. 31~9. 1, 강원도 원주시)에서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로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우리의 도시, 우리의 건강,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19개국 90여 개 도시와 70개 기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WHO WRPO)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건강도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최정상에 두고, 사회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하여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로 남원시 비전인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과 매우 부합되는 개념이다.

남원시는 2015년 4월부터 4개 분야 35명의 건강도시 추진 TF팀을 구성하여 그해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정회원 인증패를 수여 받았으며, '2015 시민체육 화합한마당' 개회식에서 건강도시 선포식을 개최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전북본부 고창군지부, 임금협약 체결

호봉제 확대 급식비 등 신설

고창군(군수 박우정)과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전북본부 고창군지부(이하 공무직노조)가 '2016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31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임금 협약식은 박우정 군수와 공무직노조 백대운 고창군지부장을 비롯해 노사양측 교섭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창군과 공무직노조는 지난 5월 16일 노사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심도 있는 교섭을 통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협약안을 만들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조합원들의 숙원이었던 호봉제를 전 직종으로 확대하고, 급식비 등을 신설했다.

박우정 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온 공무직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고 처음으로 실시된 임금협약을 통해 임금지급 기준 합리화로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합측에서 임금협상에 적극적이면서도 원만하게 체결되도록 노력한 끝에 좋은 결과가 도출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상생의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축해 군민에게 참다운 봉사 실천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백대운 지부장은 "조합측의 입장을 이해하는 고창군의 적극적인 임금협상으로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 선운골공동체 한마당 잔치

족구 · 윷놀이 등 체육경기와 민속경기 등 벌여

고창 선운산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공동체 모임인 선운골공동체가 함께 어울려 친목을 다지는 화합의 한마당이 마련됐다.

지난달 31일 선운산유스호스텔 앞 운동장에서 열린 '제7회 선운골 공동체 한마당 잔치'는 박우정 고창군수, 장명식 도의원, 조규철 군의원, 선운사 경우 주지스님, 관리사무소 공무원과 선운산농협 직원, 선운산도립공원 내 상가번영회와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족구, 윷놀이 등 체육경기와 민속경기,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에 참여하며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운사 경우 주지스님은 "선운산을 터전으로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며 상생하고 살아가는 선운골공동체 여러분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더욱 소통하고 한마음이 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사계절이 아름다운 선운산은 편안한 도솔천 산책로와 개성만점 기암괴석, 전국 최대 규모의 꽃무릇 군락지와 함께 선운골공동체 여러분의 넉넉하고 따뜻한 인심이 어우러져 전국에서 사랑받는 관광명소로 손꼽힌다"며 "앞으로도 선운골공동체의 화합과 협력에 힘입어 지중화사업과 열린관광지 사업, 생태복원하천, 대형주차장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누구나 쉽게 찾아와 오래도록 머무를 수 있는 선운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추석 맞이 지리산 농 · 특산물 직거래 장터 열려

서울 상암문화광장서

민속의 대 명절 추석을 맞아 1일부터 4일까지 서울 상암문화광장에 지리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다시 찾아온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본부장 조지환, 이하 조합)과 MBC본사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지리산이 주는 자연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도시민들이 추석을 맞아 지리산권 7개 시·군을 대표하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한자리에 접할 수 있는 기회이다. 지리산에서 채취한 약초와 산나물을 비롯해 남원 추어탕, 장수 사과, 곡성 멜론, 구례 산수유, 하동 녹차, 산청 곶감, 함양 산삼 등 각 지역의 우수한 150여 가지 농·특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가져가 서울 도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직거래장터에서는 MBC의 '파워매거진' 프로그램을 현장 생방송으로 진행하여 지리산의 다양한 먹거리와 귀농·귀촌 행사를 홍보하며, 산청 야생 약초 전시회 등 이색 볼거리 제공과 약초 향기주머니 만들기 등의 특별한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행사 기간 중 민속국악 등 다채로운 공연도 진행된다. 조합에서는 이번 직거래 장터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유통 활로를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민들에게 지리산의 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할 수 있게 하는 특별한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합은 2018년도부터는 지리산권 통합·연계관광 SW추진전략으로 연계관광 광역교통망(지리산 한바퀴 순환버스)구축, 지리산둘레길 명품화 사업, 지리산권 농·특산물 활성화를 위한 지산지소 매장사업, 지역농특산물 공동판매장 도시안테나샵 운영, 통합문화축제 박람회 개최, 지리산 한바퀴 산악자전거길 구축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재해예방사업비 확보

임실군은 국민안전처 및 전북도로부터 재해예방사업비 7억원(교부세 4억, 도비 3억)을 확보하고 덕치면 중원지구 등 사면재해 예방사업과 청웅 소재지 침수지역 해소사업에 긴급 투입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재해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심민 군수가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예산확보를 위한 사업의 당위성 설명 등 능동적 대응전략을 펼친 결과이다.

군은 교부받은 7억원중 4억원은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발생 위험이 큰 덕치면 중원지구 등 사면재해 예방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며, 3억원은 청웅면 소재지 침수지역 해소사업에 투자해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당했거나 예기치 못한 수요발생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다.

/임실=진홍영 기자

로컬플러스

임실군, 임산부 영양플러스 설명회

임실군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30일 군 보건의료원 소회의실에서 열린 설명회는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를 둔 부모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목적과 제공 보충식품, 식생활 관리능력 및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등을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여와 호응도 향상을 위해 향후 사업의 참여방법, 보충식품 처방 및 관리 이용방법 등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한편, '영양플러스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 가구 중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빈혈과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 위험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보충식품과 월 1회 이상의 맞춤식 영양교육을 비롯해 6개월 간격으로 영양평가를 실시하는 평생건강 관리형 사업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식

남원시는 민간과 공공영역이 함께 지역복지를 만들어가는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264명에 대한 위촉식을 지난달 31일 남원시청 강당에서 가졌다.

위촉식은 위촉장 수여와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및 사례 특강을 듣고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읍면동별로 공공기관, 민간서비스기관 및 복지시설 근무자, 이통장, 주민들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들로, 앞으로 2년 동안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사회보장 자원 발굴과 연계,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과 운영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또한 2018년까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방문상담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서도 위원들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 남원시에서도 선도적으로 노암동과 금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모든 동지역을, 2018년까지 모든 읍면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경찰,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운)는 지난달 31일 교육청삼거리 앞에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운전자들에게는 안전운전을 당부했으며, 어린이들에게는 올바른 보행방법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고 교통안전 홍보전단지(서다.보다.걷다)를 배부했다.

또한 최근 부산에서 즐거운 피서지로 향하던 일가족 4명이 숨진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유아용 카시트 미착용으로 뽑으므로서 만 6세 미만 아이는 차량 이동시 유아용 카시트를 필수적으로 장착해야하며 아이의 교통사고 안전에 필수품이라고 홍보했다.

최규운 순창서장은 "어린이교통사고 예방를 위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한 등·하교 시간대에 단속 인력을 집중배치하여 강력하게 단속할것이라며,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